

[대치오르비] 2021 수능 대비 정규반 7월 강의계획서

선생님	유현주 선생님
슬로건	완벽한 수능 국어의 끝! 시행착오 없이 안전하고 탄탄하게 1등급에 이르는 강의
강좌명	유현주 수능 국어 2021 수능 대비 시즌3 《유현주 국어 Pre-final 중간합류가능!》 (신규생 이전회차 강의 모두 무료 수강가능)
대상학년	고3 및 N수생
수업시간 및 회차	[정규계속반] 2020. 6/27 (토) 개강 - PM 6:30 ~ 10:00
학습목표	꼼꼼하게 기본부터 심화까지 확실히 잡는 강의 + 완벽 학생 개인별 맞춤 관리 + 완벽한 콘텐츠 (유현주국어 콘텐츠[현주간지] & 한수/상상 모든 콘텐츠 병행)

시즌3 - 총 4주

주차	강의 내용	
1주차 (6/27)	독서 1	고난도 지문 분석 (2019~2020 6, 9, 수능 기출분석→8월부터 릿밋딛수업) 거시+미시 독해의 기준 잡는 방법 이해 [지문 분석 + 문항의 정답/오답의 원리 분석] →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독해 방법 제시
	문학 1	고난도 작품 분석 (2020~2018 6, 9, 수능 기출분석→8월부터 EBS수완) 상세한 작품 분석 및 수능 적용 개념들 정리 [작품 분석 + 개념어 정리 + 작가 정리 + 변형 문제] → 비연계까지 잡는 수능 분석의 기준
2주차 (7/4)	독서 2	고난도 지문 분석 (2019~2020 6, 9, 수능 기출분석→8월부터 릿밋딛수업) 거시+미시 독해의 기준 잡는 방법 이해 [지문 분석 + 문항의 정답/오답의 원리 분석] →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독해 방법 제시
	문학 2	고난도 작품 분석 (2020~2018 6, 9, 수능 기출분석→8월부터 EBS수완) 상세한 작품 분석 및 수능 적용 개념들 정리 [작품 분석 + 개념어 정리 + 작가 정리 + 변형 문제] → 비연계까지 잡는 수능 분석의 기준
3주차 (7/11)	독서 3	고난도 지문 분석 (2019~2020 6, 9, 수능 기출분석→8월부터 릿밋딛수업) 거시+미시 독해의 기준 잡는 방법 이해 [지문 분석 + 문항의 정답/오답의 원리 분석] → 구조를 바탕으로 이해하는 독해 방법 제시
	문학 3	고난도 작품 분석 (2020~2018 6, 9, 수능 기출분석→8월부터 EBS수완) 상세한 작품 분석 및 수능 적용 개념들 정리 [작품 분석 + 개념어 정리 + 작가 정리 + 변형 문제] → 비연계까지 잡는 수능 분석의 기준

4주차
(7/18)

화작문 특강

화법·작문·문법 기출 개념완벽 분석

(2021~2024 6, 9, 수능 기출분석 → 화작문 핵심개념분석)
상세한 작품 분석 및 수능 적용 개념들 정리
[기출 분석 + 개념 정리 + 2022예비시행 문항분석 + N제 제공]
→ 교육과정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수업

2021 6월 모의평가 100% 적중했습니다!

1) 문학 중요도 A++ (현대소설 A)에서 100% 적중했습니다.

: 6모 전 배포한 문학 중요도 자료와 현주간지 교재들에서 A++ ~ A 에서만 모든 작품 적중했습니다!!

특히, 현대소설의 경우 EBS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인데 현주간지에 수록되어 있던 지문 전체가 그대로 6모에 수록되어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 2021 6월 모의평가 + 현주간지 적중내역 >
EBS 연계 지문 100% 적중 [A++ ~ A]
+
비연계 지문까지 적중!

모두 **A++ ~ A** 에서 적중되었고,
현대소설은 **EBS에서 수록되지 않았던 부분** 이
현주간지 11주차에 수록된 부분
전문이 그대로 출제 되었습니다

고전시가: 정철 관동별곡 [적중도 A++]
현주간지 13주차 수록 (EBS 비연계 적중)

현대시: 조지훈 산상의 노래 [적중도 A++]
현주간지 23주차 수록, 12주차, 5주차 수록

고전소설: 전우치전 [적중도 A++]
현주간지 20주차 수록, 17주차 수록

현대소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적중도 A]
현주간지 11주차 수록
(EBS 비수록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출제)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쌤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밤길을 도와 떠 리 길을 걸어서 어머니가 혼자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황만근은 평생을 좌우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당시에는 군청이 있는 읍에서 신대리까지 오는 버스도 없었고 있다 해도 끊어질 시각이라 산길로 오는 게 빨랐는데 네 개의 봉우리를 돌거나 넘어야 했다. 그중 네 번째 고개의 이름은 토끼 고개였다. 황만근은 오기 싫었는데, 언제까지나 오고 싶었다.

러는 공간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허전했고 또한 소름 끼치도록 차가웠다. 토끼는 토끼대로 엷게 깔려 들어오지 않는 황만근을 마저 끌어 들이기 위해 온 몸을 떨면서 뒷발을 든 채 버티고 있었다.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희연히 흘렀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붉어졌다. 토끼는 황만근을 끌어 들이기 시작했다.

황만근은 오기 싫었는데, 언제까지나 오고 싶었다. 황만근은 오기 싫었는데, 언제까지나 오고 싶었다. 황만근은 오기 싫었는데, 언제까지나 오고 싶었다. 황만근은 오기 싫었는데, 언제까지나 오고 싶었다. 황만근은 오기 싫었는데, 언제까지나 오고 싶었다.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98p 적중!!
EBS 수록 X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적중

“그기 뭐 소리라? 내가 내 집에 내 발로 가는데 니가 뭐라고 집에 못 간다 카나. 귀신이마 뽀 물러가고 토끼 마 착 얼디리라. 내가 너를 타고서라고 집에 갈란다.”
거대한 토끼는 황만근이 한 번도 말아 본 적이 없는 비련 냄새를 풍기면서 느릿하고 딱한 음성으로 다시 말했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여기서 죽는다. 너는 집에서 못 간다.”
황만근은 온몸에 소름이 돋고 털이란 털은 모두 위로 곤두섰다.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 토끼를 밀치며 “비키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토끼를 밀친 황만근의 팔이 토끼의 털에 묻히는가 싶더니 진공청소기에 빨려 드는 파리처럼 우욱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다(황만근이 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민 씨의 표현이다). 황만근은 한 팔로 옆에 있는 나무를 붙잡으면서 빨려 들어간 팔을 도로 빼려고 안간힘을 썼다. 황만근을 빨아들이

“...가 팔죽 할마이권이 오래오래 사는 거다.”
(팔죽 할마이란 팔죽을 따는 할머니, 혹은 늘 팔죽을 주고 있는 할머니 같은데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어쩌서 오래 산다고 하는지 민 씨는 모른다.)
토끼는 마음이 있는 서쪽으로 고개를 기울었다가 몸을 소스라치게 떨고 나서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들어주었다. 그 다음은?”
“어우 길은 마누라가 생기는 거다.”
“송편을 세 번 먹으면 네 집으로 올 거다. 다음은 무엇이나?”
“떡두레(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다.”
“마누라가 들어오면 용왕이 와서 그렇게 해 준다. 이제 나를 놓아라.”
“내가 언제 너를 잠았나. 니가 가 뿌리만 되지. 바보 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성계 부 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뜨겁고 대운 김을 내뿜었다. 황만근이 눈을 뜨지 못하고 췌편때다가 간신히 떠 보니 어느새 자신의 팔이 돌아와 있는 것이었다. 황만근의 주변에는 토끼털이 무수히 떨어져 바늘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황만근은 제대로 숨 쉴 겨를도 없이 집으로 달려갔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샘이 직접 분석한

문학중요도 A☆☆☆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다. 동네 곳곳의 닭들이 헛대에서 소리쳐 울고 있었다. 황만근은 밖에서 "어무이, 어무이!" 하고 소리치면서 마당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나갔을 때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해 앉아 있었다.

"어무이, 어무이!"

그가 어깨를 흔들자 젊은 어머니는 모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서 "카악!" 하고는 목에서 주먹밥 덩어리를 토해 냈다. 황만근이 어머니를 껴안고 뽕곡을 하다가 손발을 주무르고 온몸을 어루만지자 어머니는 눈을 떴다.

"니 와 인자 왔노?"

"밤새도록 토끼이 귀신하고 씨름을 하다 왔다. 나는 꽤 않나."

"니 기다리다가 아까 해 뜰 녀에 닭이 울길래 밥 한 덩이를 입에 넣었다가 목이 딱히서 죽을 췌했다. 움직일다가는 더 딱힐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모르고 이래 니가 오기 기다리고 있었니라. 이 문디 젊은 놈의 자숙아, 와 밥만 해 놓고 물은 안 떠다 냈나!"

황만근은 울다가 웃다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러고는 어머니에게 영영이를 채어 물을 뜨러 동네 우물로 달려갔다. 그날 우물가에서는 황만근의 기이한 체험이 여러 사람의 입으로 하루 종일 수십 번 되풀이되었고 동네 황만근이 우물가로 초청되어 입이 아프도록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만근뿐만 아니라 토끼도 둘 사이의 힘겨루기에서 안간힘을 써야 했다.
- ② 황만근은 토끼가 남기고 간 땀을 주워 와서 자기 이야기의 증거로 삼았다.
- ③ 황만근은 토끼의 위험에 겁이 났지만 오히려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했다.
- ④ 밤새 토끼와 대결한 황만근은 날이 밝을 무렵에야 짐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⑤ 황만근은 토끼를 만난 일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도 일관성을 유지했다.

01 윗글이

- ① 어리석고 단순하고
- ② 서술자가 주관적, 평가적
- ③ 서술자가 객관적, 관찰적
- ④ 이야기 내용이 생동감을 띠고
- ⑤ 등장인물이 주인공의 행동을 전제

현주간지 3월호 11주차 98p 적중!!

EBS 수록 X 부분 현주간지 전문 그대로 적중

현대소설은 EBS에서 다뤘던 작품이지만 EBS에 수록된 부분이 아니라, 현주간지 11주차에 나온 파트가 전문이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생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지식 재산 보호 지문

6월 모의평가 적중!!! **현주생이 직접 제출한**
EBS 연계 변형 지점 적중
지식 재산 보호 지문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비문학 31~32번

현주간지 3월호 10주차

31. <보기>는 적중을 잃은 학생이 수험생 학습자의 입장에서 쓴 여러 문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기>

○ <해설> ①은 근거로 E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탈화가 부각되는 것이 다국적 기업을 성장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근거로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 <해설> ②는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 <해설> ③은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 <해설> ④은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32. [A]를 적용하여 <보기>가 옳은 것은? [3점]

<보기>

○ <해설> ①은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 <해설> ②는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 <해설> ③은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 <해설> ④은 ECT 다국적 기업 지위에서 ECT 다국적 기업 지위를 잃은 것은 국가인식도 낮다.

EBS 비문학 지문
6모에서
법 지문을 경제적으로 변형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적 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를 중시해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다. 지적 재산권은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과 산업 분야의 디자인이나 발명, 상표에 대한 권리인 산업 재산권으로 분류된다. 산업 재산권 중 발명에 대한 권리를 특허권은 직접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는 사상의 발명에 부여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 독점권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허권이 기술적 사상의 발명에 부여된다는 것은, 실제 물건으로 구현되지 않더라도 그 발명을 만드는 기술적 공정에 대한 주체라고 상정한 자에게 대해 특허권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은 특허청에 출원하면 심사받게 되며, 특허권을 부여하는 데는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해야 한다.

한편, 발명과 같은 지적 생산물은 공공재에 해당한다. 공공재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제품 생산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미인 비배타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비경합성이다. 따라서 공공재는 그것을 생산·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공공재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지만 누군가 먼저 나서서 만들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사용하면 공공재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 특허권 부여는 기술 정보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를 통해 발명을 촉진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EBS 비문학 지문
현주간지에서
경제적으로 접근+해석

콘텐츠는 검증되고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 3년만에 인강복귀 +18,955% 매출 상승의 신화
 수많은 학생들의 요청에 3년만에 인강에 복귀했고, 복귀 첫 달만에 이전 매출에 비해 +18,955% 상승하여 강의와 콘텐츠 모두 많은 학생들에게 인강받았습니다. 유현주국어는 이제 시작이기에 더욱 열심히, 더욱 좋은 콘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국어 문법책, 문법의 끝(오르비 8년 연속 1위)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치밀한 공부법! 무수히 많은 학생들의 후기와 판매량으로 입증된 교재의 저자가 말하는 문법 개념 정리법. 개념 정리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가장 좋은 문법 공부 방법입니다.
- 실전에 쓸 수 있는 콘텐츠(학생 스스로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잡습니다)
 (거시+미시 손분석 = 거미손 커리큘럼 - 손글씨 분석서)
 실전에 쓸 수 없다면 좋은 공부법이 아닙니다. 지문에 표시를 못하는 학생이나 지문에 아무렇게나 표시하며 읽어서 내용 정리가 안되는 학생들에게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체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실제로 독해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 정규 수업 그 이상의 복습 콘텐츠 '현주간지'
 매주 20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복습 콘텐츠 제공
 → EBS 연계 문제/기출문제 + 지문 분석(미시/거시분석의 상세한 내용 분석)
 + 문항 해설(문항기준표까지 하나하나 담은 상세한 분석) + 손글씨 필기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 직접 표시)
 오프라인 12년, 온라인 10년의 강의 경력으로 매주 200페이지 분량의 완벽한 복습 콘텐츠인 '현주간지'를 모든 수강생에게 제공합니다. 매주 제공되는 '현주간지'에는 EBS 연계 변형 문제와 관련 기출 문제, 꼼꼼한 지문 분석(미시/거시 분석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상세한 설명 포함)에 문항 기준표까지 하나하나 담은 상세한 분석과 손글씨로 직접 시험장에서 쓸 수 있는 필기들을 정리해서 담았습니다.
 수업의 연장인 과제까지 완벽하게 복습이 가능하도록 가장 좋은 콘텐츠들을 모두 담아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춰 실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5) 맞춤형 관리 + 1등급 도약을 위한 기출 기반 개인 트레이닝 콘텐츠

(학생 개인별 콘텐츠 제공)

최근 트렌디한 고난이도 기출 지문을 스스로 체화할 수 있는 맞춤 트레이닝 동영상과 정규 수업의 원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담겨 있는 분석 자료집이 제공됩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성적 추이 추적 및 맞춤형 트레이닝 자료가 제공되므로, 개인별로 취약한 부분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습니다.

6) 대치동의 가장 좋은 자료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1년 내내 상상/한수 전체 콘텐츠 제공

시기에 맞춰 6/9월 모의평가,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콘텐츠들을 모두 제공합니다. 최근 많은 학생들에게 수능과 가장 근접한 난이도의 모의고사로 평가받는 상상/한수 모의고사의 모든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매주 현주간지와 대치동 현장 콘텐츠까지 모두 수업에서 제공하여 수능 전까지 양질의 콘텐츠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완벽한 복습의 끝!

출석하면 모든 학생에게 복습 영상과 수업 내용을 정리한 복습시트를 제공합니다.

수업을 수강한 이후, 복습까지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영상과 텍스트 모두를 제공합니다. 복습시트의 경우, 수업 내용 전체를 문서화하여 현장을 들은 학생의 경우 텍스트만 읽어도 복습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강의는 본질을 향해야 합니다.

1) 수능 국어의 기준을 잡는 수업

안정적 1등급은 각 갈래별로 완벽히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시험장에서 어떤 지문이 와도 학생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체화하여 시험장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수업합니다.

■ 독서 - 안정적으로 독해하는 방법의 기준을 잡은 후, → 동일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잡습니다. 최근 기출 독서의 유형들을 모두 정리하고, 긴 지문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집니다. 기출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 (EBS 변형문제)를 통해 이를 완벽히 보완하여 1등급 도약을 준비합니다.

■ 문학 - 어려운 문학에 대비하는 법! - 다시 기본으로, 문학 개념어 분석과 작품 분석을 철저하게!

EBS 연계 작품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먼저 역시 기출 문제에서 사용되는 개념어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작품별 특성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출 + EBS 연계교재 작품 분석집 + 이감 모의고사&간쓸개를 통해 갈래별 출제되는 포인트와 문학 개념어를 체계적으로 잡습니다.

■ 화법과 작문 / 언어(언어와 매체-기존 교육과정의 '문법')

: 화작문은 최근 더욱 어려워진 파트 문법은 항상 오답률 5위 안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

6년간 오르비 atom 문법 1위 교재인 '문법의 끝'으로 기본기를 다지고, 심화 문법 개념들을 다집니다. 화법, 작문의 경우도 EBS 지문과의 연계에 집중하여 기출 유형들을 완벽히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전에서 강한 개념 수업을 진행합니다.

2) 한 번만 강의를 들어도 수능 국어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수업과 숙제가 연결되어 학생 스스로가 분석 및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의 구성 - 거미손 커리큘럼(거시+미시 손분석)

분석 체계가 없는 학생에게 분석의 기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독해능력향상, 작품 이해, 문항 분석, 화작문의 개념 적용이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거미손' 숙제 파일을 통해 수업과 과제가 짜여있어 일관된 방법을 체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매번 수업은 촬영되어 인강으로 복습이 가능하며 학습에 필요한 추가 영상들도 무제한 제공되고, 학생 상담 및 Q&A 질답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6평, 9평, 수능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실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의 2020 6평, 9평, 수능 후기입니다. 그 외에 해설강의 후기도 첨부합니다.

송용신 (고려대 의대)

유현주 국어 수강생

현역 국어 5등급 → 20수능 국어 1등급,
전과목 3문제 틀림

“하나의 스킬만으로 비문학 정답률이 올라가는 제 자신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문학은 EBS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강조하신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유현주 선생님하면 문법을 빼놓을 수 없는데, 문법의 끝은 역대급입니다.

많은 후배님들도 유현주 선생님의 좋은 콘텐츠와 강의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송용신 [현역 국어 5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전과목 3개틀림]

비문학이 B문학인줄 알았던 학생...

안녕하세요 유현주쌤 강의를 들었던 송용신입니다. 저는 노베이스였습니다.

그리고, 특목고였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된 국어는 아예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며 수능 국어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마음 먹었을 때에는 심지어 비문학이 B문학인줄 알기까지 했던 노베이스였습니다. 문학A, B하는 것처럼 수능 국어의 A문학, B문학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학생이 유현주쌤을 만났고, 비문학을 대응하는 법부터 배워나갔습니다. 하나의 스킬만으로 비문학 정답률이 올라가는 제 자신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신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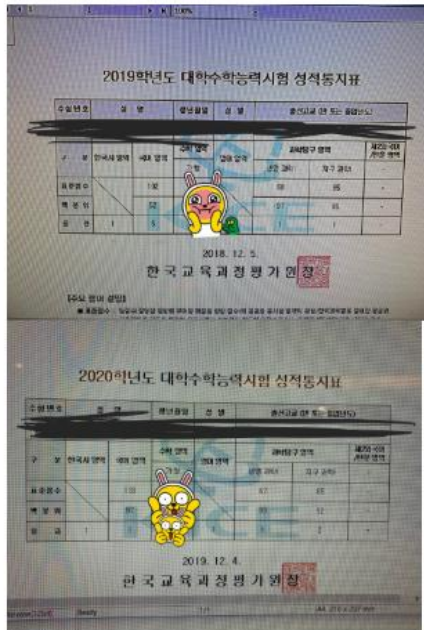
문학도 문학 나름대로 배워나갔는데, 각 갈래별 대응법에 맞춰 하나의 정형화된 풀이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특히 문학은 EBS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강조하신 지문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유현주쌤하면 문법도 뺄 수 없는데, 하나의 큰 백과사전 같은 문법의 끝이 역대급입니다. 흔히 문법 보기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넣는다고 알려져있는데, 그런 내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적당히 지엽적이면서도 수능을 위한 개념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휴학 반수로 수능 수업은 국어밖에 듣지 않았는데 현역 때 68점(5등급)이었던 성적에서 2020 수능 국어 1등급이 나온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후배님들도 현주쌤의 좋은 콘텐츠와 강의로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유현주쌤 후기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6755852>



작년 수능 국어 성적표, 올해 20학년도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것과같이 작년 국어 5등급에서 이번 수능 1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국어에 재능이 없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올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20학번 안OO [19수능국어 5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작년 수능 국어 성적표, 올해 20학년도 성적표입니다. 보시는 것과같이 작년 국어 5등급에서 이번 수능 1등급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과 달리 국어에 재능이 없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가장 큰 발목을 잡아왔는데요.. 올해는 더욱 더 국어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매우 실망스러운 점수를 6월 모의평가 때 받았고, 충격으로 현강을 알아보다가 우연하게 유현주 선생님 단과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첫 수업을 받고 저의 국어 공부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비문학을 읽을 때 지문을 쭉 끝까지 읽고 난후에,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꺾쇠 괄호 대괄호() [] 표시 쓰는 법을 지문에 적용하면서 비문학을 접근해 나갔습니다. 이런 괄호 표시를 통해 어려운 비문학을 기호들로 체크하며 읽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지문을 찾아서 꼼꼼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방법을 체화면서 점점 더 자신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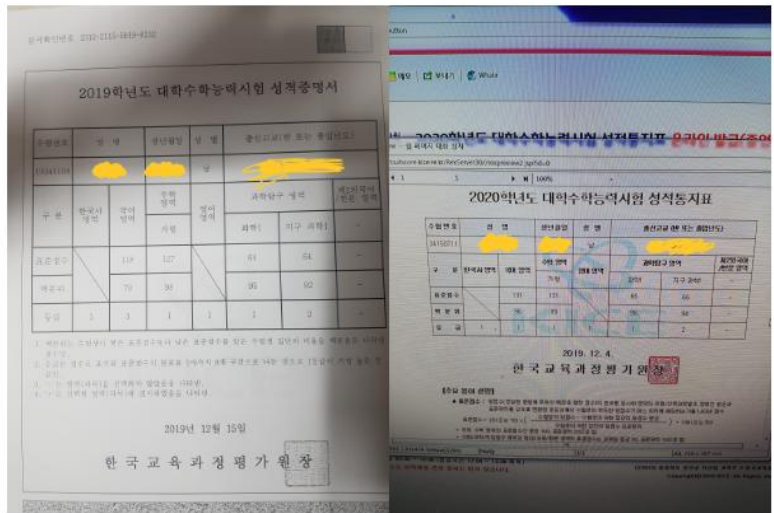
선생님 방법을 통해, 중요한 문장들이 눈에 확 들어와서 비문학 시간을 줄였고, 줄인 시간만큼 화작문과 문학에 시간을 쓸 수 있어서 화작과 문학 실력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특히, 거미손 분석 자료를 통해서 기출 지문들을 연습하면서 체화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외에도 한수모의고사, 화작문의 끝 등등의 양질의 자료를 마구 주셔서 자료는 절대 부족할 일이 없었습니다.(사실 저것들도 다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 질문도 다 받아주시는 게 전 가장 좋았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선생님 방법 관련된 질문은 조교가 아닌 선생님에게 여쭙서 해결하는 게 가장 최상이니까요. 또, 숙제도 개인별 맞춤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을 3번 보는 동안 수능을 포함한 8번의 평가원 시험에서 1등급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지만,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 수능때 1등급을 생에 처음으로 쟁취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국어 덕분에 최저도 수월하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유현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유현주쌤 현강 후기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6661413>



유현주쌤 안녕하세요 올해 중앙대 의대에 합격한 현강생입니다. 그 성대 다니던 학생이에요~
 저는 수능만 치면 국어는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6평과 9평에선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수능만 되면 3등급만 뜨더라고요.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현주쌤 현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진 무조건 지문 이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딱히 다른 스킬은 없었죠. 하지만 수능날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가능세계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 지문을 첫번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첫문단부터 이해가 안 되더니 결국 지문 전체가 꼬여버렸고 국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유현주쌤 수업을 듣고 글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감히 넘어가더라고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고 중요한 곳은 힘 주며 읽으니 지문이 잘 읽히더라고요. 결국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의예과 20학번 양재현 [19수능국어 3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유현주쌤 안녕하세요 올해 중앙대 의대에 합격한 현강생입니다. 그 성대 다니던 학생이에요~
 저는 수능만 치면 국어는 항상 3등급이었습니다. 6평과 9평에선 2등급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수능만 되면 3등급만 뜨더라고요. 올해는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유현주쌤 현강을 들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이전까진 무조건 지문 이해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딱히 다른 스킬은 없었죠. 하지만 수능날엔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하나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특히 작년에 가능세계 지문이 나왔었는데 이 지문을 첫번째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첫문단부터 이해가 안 되더니 결국 지문 전체가 꼬여버렸고 국어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유현주쌤 수업을 듣고 글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과감하게 넘어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과감히 넘어가더라고 표시할 부분은 표시하고 중요한 곳은 힘 주며 읽으니 지문이 잘 읽히더라고요. 결국 이번 수능에선 처음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학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쌤이 체크하라는 부분은 체크하고 강조하신 부분은 강조해서 읽으니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도 올라갔습니다. 쌤만 따랐더니 이번 수능에서 문학을 다 맞았습니다.
 수업 이외의 부분도 좋았습니다. 질문도 항상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상담도 잘 해주시고...무엇보다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막 이상한 곳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비에스 연계 자료가 포함되어서 나오니 연계 공부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맞춤 숙제도 주셔서 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국어때문에 의대 최저를 맞춘 적이 없었는데 쌤 덕분에 이번에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술로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 2019-11-15 16:14:46 조회수 2,567 🗨️ 11

재수생의 작년 수능국어 4등급-> 20수능 96점 후기 (유현주쌤 캐리 2)

게시글 주소: <https://www.orbi.kr/00025421955>



<https://orbi.kr/00023047903>

위에 6월때가 캐리 1

는술준비하면서 책상 정리하다가 후기 써봘니당

일단 저는 겨울이 아니라 재종 탈주후 방향하다가 4월쯤 압축특강 하실때 첨 들었어요 국어는 방향성을 못잡아서 한창 힘들땐데 비문학 푸는법 듣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6월도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이라는 등급도 받아보고 9월은 컨디션 망했으니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때 점수가 수능으로 와서 96이 되었지 않았나 싶네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20학번 박재현 [19수능국어 4등급 → 20수능국어 1등급]

우선 저는 겨울이 아니라 재종 탈주후 방향하다가 4월쯤 압축특강 하실 때 첨 들었어요 국어는 방향성을 못잡아서 한창 힘들땐데 비문학 푸는법 듣고 아 이거다 싶었습니다 덕분에 6월도 인생 처음으로 1등급이라는 등급도 받아보고 9월은 컨디션 망했으니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그때 점수가 수능으로 와서 96이 되었지 않았나 싶네요

일단 2020 수능 후기는

화작: 사실 화작은 파이널 이감/한수때 10분 안쪽으로는 끝내려고 해서 시간은 많이 절약했어요 지문 길이가 좀 길긴 하던데 매주 화작의 끝 프린트 나눠주시던 것으로 일주일 전부턴 연습해서 무난하게 넘겼네요

문법: 현주쌤 문법의끝 최고..ㄱㄱ 대비가 안되었다면 한두개는 더 틀렸을거 같습니다. 사실 1회독을 수능 2주인 가 3주전에 끝내서 제 문법이 완벽하다고는 말씀 못드릴듯 싶지만 14번 하나만 틀려서 다행이네요.

문학: 사실 문학이 유현주쌤 도움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이에요. 오르비에도 올리셨지만 종강때 고전시가 전문 분석들 나눠주셨는데 없는 시간에 뭘 더 중요시할까 하다가 가장 강조하신 월선헌만 전문 3번 본거같아요 옥루 나오는 부분 해석이 헛갈려서 수능 전날밤에도 질문드렸는데 그부분이 선지로 나올줄은 ㄱ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씨삼대륙이나 자전거 도둑 정도는 정신없이 읽고 풀어서 기억도 잘 안나네요. 맨 뒷장 윤동주 시도 현주쌤 연계분석서 덕분에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적중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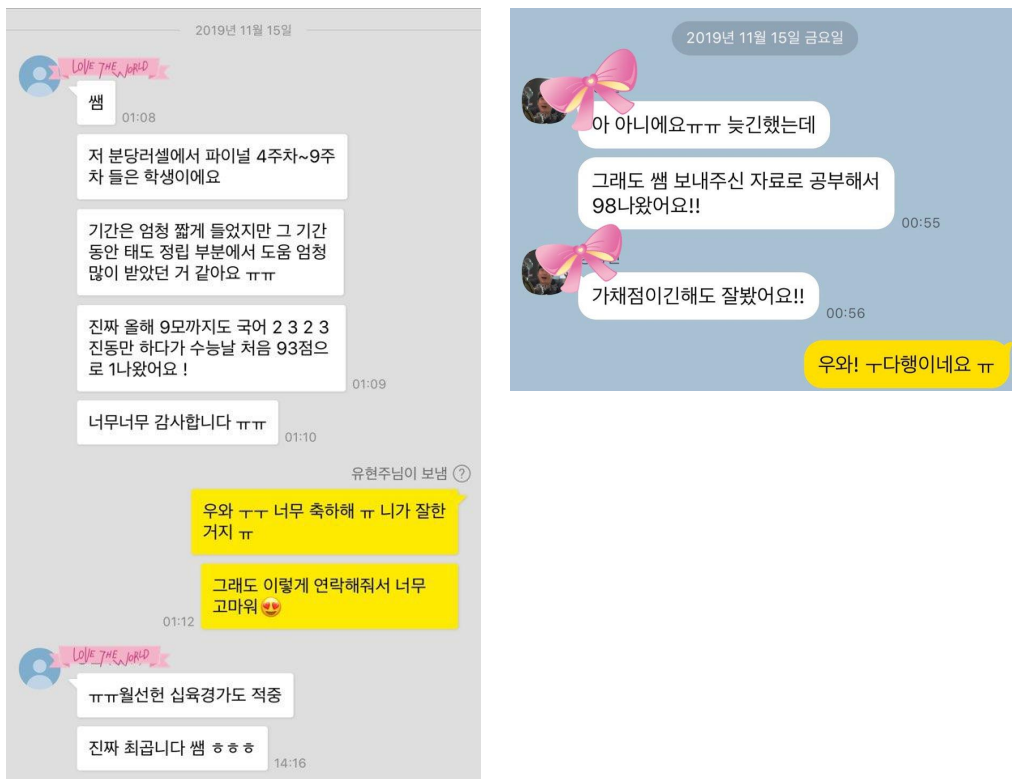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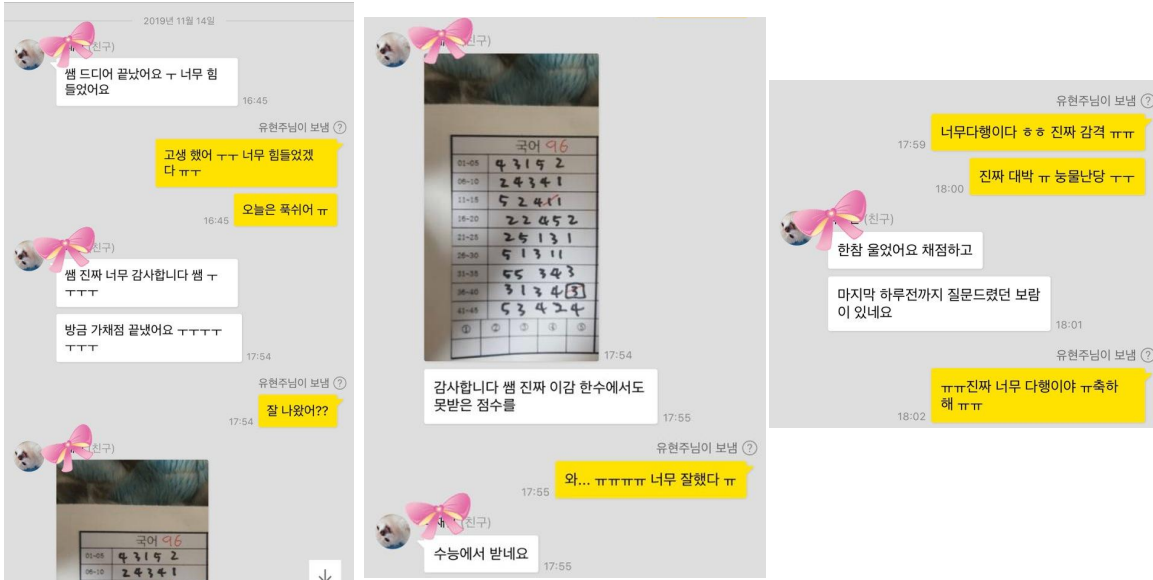
비문학: 작년에는 구조독해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읽었는데 올해는 현주쌤이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는거 같아요 거시독해 미시독해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이감/한수까지 가르쳐주신 행동영역이 수능때 정말 빛을 발한거 같네요 41 번이었던 경제 보기 시간없어서 못풀었는데 결국 틀렸네요 이 지문 말고 배이즈랑 생명은 진짜 쉽다고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영역도 제게 가장 큰 도움이 된 부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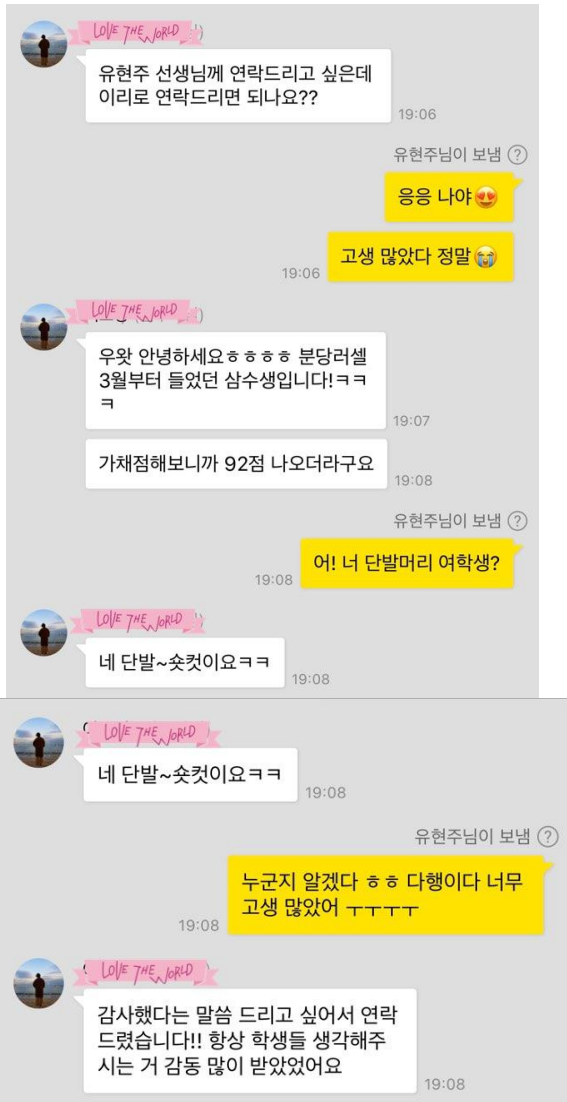
비문학에 대해서 더 말해보자면 꺾쇠, 괄호, 넘버링은 비문학 독해 방향성 못 잡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될거 같아요. 저도 무작정 줄치고 동그라미하면서 아무생각없이 읽던 학생중 한명이었지만 P&S구조, 물리적 구조와 논리적 구조, 어디까지의 이해하면서 읽고 어디부터는 보기문제 풀때 대조해서 봐야하는지 등 쌤 만나면서 독해실력 정말 많이 향상했습니다!

필력이 떨어져서 두서없이 쓴 거 같지만 그래도 쌤 만나고 수험생다운 공부를 시작한거 같아 감사해서 후기 남겨 봅니다. 매주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는 가끔 감당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끝내려고 노력했던게 수능국어 96이라는 결과로 나온거 같아요

1년전 43245를 받고 한참 낮은 꿈을 꾸었던 제가 더 높은 꿈을 꿀수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혹시라도 국어의 갈피를 못잡고 있는 내년 수험생이 이 후기를 본다면 현주쌤 수업 강추합니다 저처럼 1년도 안되어서 성적 오르실 수 있어요

〈2020 수능 후기〉







토요일

일요일

9:00
~12:30

강남
오르비

대치
러셀

14:00
~17:30

분당
러셀

18:30
~22:00

대치
오르비

평촌
러셀

수업 문의

유현주 국어: 010- 3574-7316

수업 등록

메가스터디 대치러셀학원: 02-2138-1010

메가스터디 분당러셀학원: 031-629-1010

메가스터디 평촌러셀학원: 031-341-6500

대치 오르비학원: 02-3454-0207

강남 오르비학원: 02-522-0207

대치 이강학원: 1566-2005

대치동 현주쌤

<http://www.korean-edu.co.kr>

관리
프로그램

1. 과정별 본 강의 진행 (미니모의고사응시 : 30분 + 독서, 문학, 화작+언어(문법)
개념강의 : 3시간)
(+ 보충 영상 및 복습 영상은 모두 무료 제공)
2. 매일매일 질문 답변 및 Q&A 답변
(www.orbi.kr에서 매일 밤 질문받습니다. 답변이 밀리지 않아 상시 질문이 가능합니다.)
3. 매주 정규 과제 부여 & 동영상 강의로 복습 가능
4. 학생 개별 성적 분석 및 개인별 맞춤 틀린 문항 분석 자료가 나갑니다.
5. 1주일 내내 충분히 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공부량
+ 현강 학생용 손글씨 분석서 제공

수업기간

2020. 6/27 (토) ~ 수능까지 정규반 : PM 6:30 ~ 10:00

특이사항
(휴강 등)

교재명

유현주국어 현주간지 무료
(시중가 : 1권당 9,900원)

+ 상상모의고사 + 한수모의고사 수업 진행시 제공

교재가격

현주간지 무료